바이오 프레스코
BIO FRESCO

바이오 프레스코 –
물질과 생명 사이
BIO FRESCO –
Between Matter
and Life

2026–2027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전

2026–2027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바이오 프레스코
BIO FRESCO

바이오 프레스코 –
물질과 생명 사이
BIO FRESCO –
Between Matter
and Life

2026–2027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전

2026–2027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2026-2027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전

《바이오 프레스코 – 물질과 생명 사이》

김대희
김윤철
디스노바시옹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전혜주
정혜정
클레르 옵스큐르

전시기간
2026. 11. 19.(목) – 2027. 1. 31.(일)

관람시간
화-일 11:00 – 18:00,
매주 월요일 및 1/1(금) 휴관

관람료
무료

전시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B)

2026-2027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BIO FRESCO – Between Matter and Life

Dey KIM
KIM Yunchul
DISNOVATION.ORG
Simon Lazarus 84 & s8jfou
JUN Hyejoo
JUNG Haejung
Le Clair Obscur

Exhibition Period
November 19 (Thu), 2026 – January 31 (Sun),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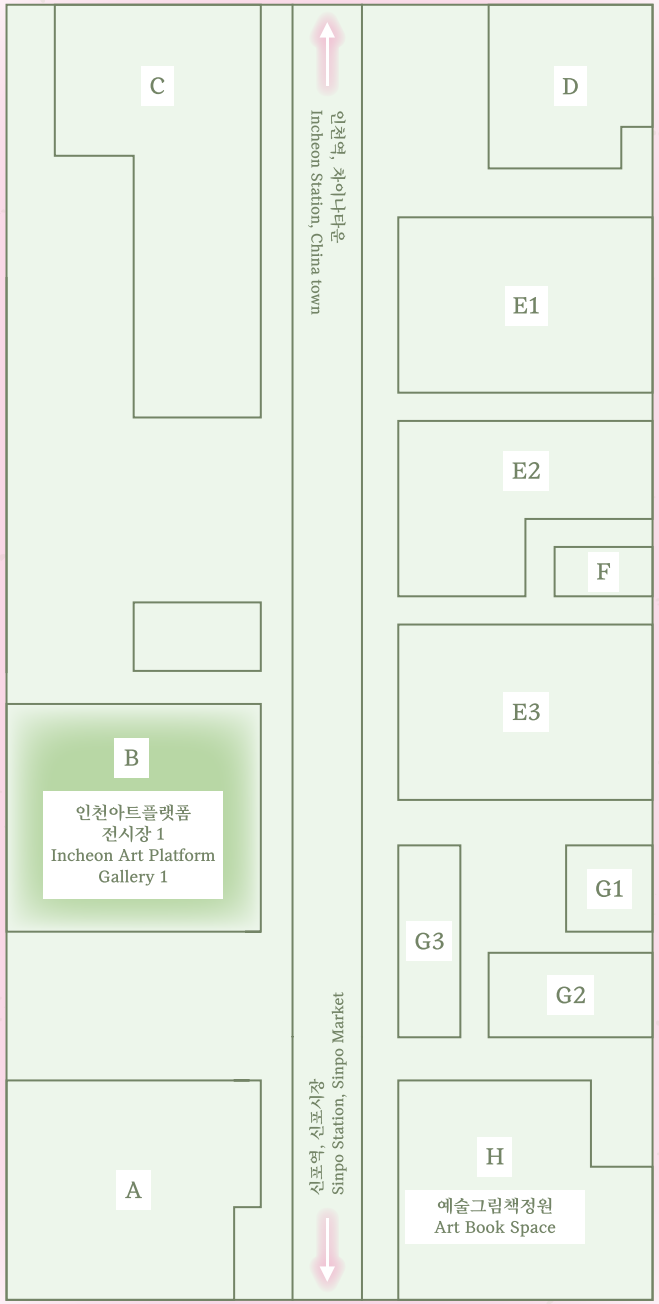
Opening Hours
Tuesday-Sunday 11:00 – 18:00,
Closed on Mondays and January 1 (Fri.)

Admission
Free

Venue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 (B)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 1 위치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1 Location



물질과 생명, 그 경계의 사이와 너머를 감각하기

이영리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큐레이터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아트플랫폼이 마련한 《바이오 프레스코 – 물질과 생명 사이》는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Institut français)의 '2026 디지털 노벰버'와 연계한 전시로, 한국 작가 4명(김대희, 김윤철, 전혜주, 정혜정)과 프랑스 작가 그룹 3팀(디스노바시옹, 클레르 옵스큐르,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총 7팀이 참여한다.

전시 제목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을 환기하는 '바이오(Bio)'와 '신선한'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이자 벽화 기법을 가리키는 '프레스코(Fresco)'를 결합한 것이다. 젖은 회벽에 안료가 스며들어 벽과 하나가 되는 프레스코처럼, 전시는 물질에서 생명이 깨어나는 순간과 이를 예술로 옮기는 방식을 탐색한다. 센서와 컨트롤러, 웨어러블 장치, VR, 생성형 AI, 레진과 도자 등 다양한 매체 속에서 관람객은 생명과 기술,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넘나든다.

'2026 디지털 노벰버'의 주제인 '행간에서(Between the Lines)'는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미묘한 신호와 함의를 살피며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다시 상상하도록 제안한다. 《바이오 프레스코》는 이를 생명과 물질 사이의 경계로 확장한다. 여기서 '사이'는 단순한 중간 지대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존재와 영역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장소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윤철**의 〈아르고스-부풀은 태양들〉(2022)을 마주하게 된다. 가이거-뮐러 튜브 246개를 꽃봉오리나 곤충의 겹눈처럼 조형한 거대한 감각 장치인 이 작품은 우주를 가로질러 지구에 닿는 미립자 뮤온의 흔적을 빛과 소리로 바꾼다. 어떤 입자가 언제 도착할지는 예측할 수 없어 우연한 충돌이 매번 새로운 감각적 사건을 만든다. 작가는 입자와 장치가 단순한 대상에서 예술의 행위자로 바뀌는 이 상태를 '트랜스매터링(transmattering)'이라 부른다.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의 〈사우데이터〉(2026)는 생성형 코드가 실시간으로 그리는 오디오-비주얼 영상에 균사체, 바이오플라스틱, 나무, 3D 프린팅 부품으로 만든 조각-악기들을 결합한 설치 작업이다. 관객이 조각-악기를 누르고 쓰다듬으며 연주하면 영상과 소리가 반응하고, 살아 있는 재료는 작가의 손을 떠난 뒤에도 세포 발달의 속도로 자란다. 살아 있는 분자와 알고리즘 픽셀간의 연금술을 보여주는 이 '디지털 프레스코'에서 관객은 작품을 바라보는 수동적 감상자 아니라 만지고 눕고 놀며 작품과 하나가 되는 적극적 연주자가 된다.

김대희의 〈접균〉(2026)에서 관객은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텅 빈 듯한 공간으로 손을 뻗는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빛과 소리를 타고 온몸으로 번지면, 비어 있다고 믿었던 곳이 앞서 머물다 간 이들이 남긴 미생물의 구름으로 채워져 있음을 감각하게 된다. 제목 '접균(接菌)'은 비가시적 존재와 연결되는 접신(接神)의 감각을 미생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디스노바시옹의 〈인류세 도감〉(2025)은 2021년 출간된 동명의 책에서 출발한 설치 작품이다. 중세 동물 도감의 형식을 빌려 포다이트, 치킨 뼈, 감시 로봇개, 안테나 나무, 드론과 싸우는 독수리, 유전자 복제된 바나나 등 '탈자연' 시대의 표본을 제시하며, 생물권과 기술권이 뒤섞여 하나의 혼종적 신체가 되어가는 현재를 기록한다. 12점의 도자기 접시로 이루어진 〈태양을 먹다〉(2024)는 태양 에너지가 생물권을 순환하며 식량과 연료, 인프라를 떠받치는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를 다시 읽는다.

전시장 2층으로 올라와 처음 만나는 **클레르 옵스큐르**의 〈지구를 위한 잠〉(2025-2026)은 인류의 소비와 착취를 멈추게 하기 위해 약 200년간 동면에 드는 가상의 UN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관람객은 200년의 시간을 한 시간으로 압축해 체험하게 된다. 생성형 AI의 안내와 공간 음향이 어우러진 가상현실에서 관람객은 수면자가 되어 꿈을 꾼다. 생성형 AI는 이들의 꿈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길어 올려 몰입의 경험을 이끈다. 잠드는 일은 평온한 생태적 실천일까, 체념일까, 소비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는 전복일까. 작품은 답 대신 질문을 던지며, XR과 AI를 해결사로도 재앙으로도 단정하지 않은 채 지구의 미래를 위한 인간의 행동과 책임을 되묻는다.

정혜정의 〈노틸러스호의 따개비〉(2025)는 『해저 이만리』를 경유해 따개비의 시점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영상으로, 실사 촬영과 디지털 애니메이션을 엮어 산업주의, 식민주의, 생태주의의 맥락에서 비인간 존재를 포함한 역사를 다시 쓴다.

〈멍게-되기〉(2022)는 관객이 서 있으면 바다를 유영하는 유생 멍게가 되었다가, 앉으면 바닥에 뿌리내린 성체 멍게가 되는 VR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누가 세계를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을 뒤집는다. 인간이 아닌 생물의 눈으로 보면 발견과 착취를 중심으로 쓰인 역사는 달리 읽히고, 동물과 식물,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범주도 흔들린다.

전혜주의 〈망상-사라진 생명과 마주하는 법〉(2025)은 종의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생명이 결합하고 날씨와 기후마저 뒤섞이는 불안정한 환경을 펼친다. 작가는 도나 J. 해러웨이의 '사자(死者)의 대변인' 개념을 참조하고, 암컷 벌을 흉내 내 수컷 벌을 불러들이는 난초의 공생을 은유 삼아, 존재란 관계가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결박의 패턴들〉(2025)과 〈아카이브 테이블〉(2020-2025)에서는 식물이 레진 속에 굳어 규격화된 단면으로 진열된다. 영상이 변이와 얽힘을 보여준다면, 조각은 생명이 대상화되고 규격화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일곱 팀의 작업은 형식과 매체가 저마다 다르지만, 인간을 세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양한 존재와 환경의 관계를 살핀다는 점에서 만난다. 관람객은 보이지 않는 입자의 신호를 감지하고(김윤철), 미생물의 존재를 몸으로 느끼며(김대희), 생체 소재와 알고리즘이 상호작용하는 설치를 경험한다(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다른 생물의 시점으로 역사와 바다를 바라보고(정혜정),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과 공생 구조를 떠올리며(전혜주),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으로 경제를 다시 읽는다(디스노바시옹). 나아가 200년간 잠드는 가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클레르 옵스큐르)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본다.

전시는 자연과 기술을 대립시키거나 모든 경계를 허물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존재와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가려지는지를 살핀다. 생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가. 기술은 누구의 필요를 위해 작동하는가. 인간의 일상과 경제는 지구의 생태적 조건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가. 작품들은 정답을 내놓기보다 관람객이 저마다의 관점으로 이 질문을 마주할 여지를 열어 둔다.

물질과 생명, 기술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놓인 경계는 어디에, 무엇을 위해 그어졌는가. 한국과 프랑스 작가들이 나누는 이 대화가 경계의 사이와 너머에 숨겨진 관계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양국의 수교 140주년을 공동의 미래를 향한 사유의 출발점으로 넓혀 가기를 기대한다.

Matter and Life: Sensing Between and Beyond Boundaries

LEE Young-ri
Team Leader and Curator, Incheon Art Platform

Presented by Incheon Art Platform to commemorate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France, *Bio Fresco – Between Matter and Life* is an exhibition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Digital November 2026, an initiative of the Institut français. The exhibition brings together seven participating artists and groups: four Korean artists (Dey KIM, KIM Yunchul, JUN Hyejoo, and JUNG Haejung) and three French artist groups (DISNOVATION.ORG, Le Clair Obscur, and Simon Lazarus 84 & s8jfou).

The exhibition's title combines 'bio', evoking the diversity of life on Earth, with 'fresco', an Italian word meaning "fresh" which also refers to a technique of mural painting. Just as pigments applied to wet plaster become integral to the wall itself in fresco, the exhibition explores moments when life awakens within matter and the ways these moments are translated into art. Through media including sensors and controllers, wearable devices, virtual reality, generative AI, resin, and ceramics, visitors are invited to explore the boundaries between life and technology, nature and the artificial.

The theme of Digital November 2026, "Between the Lines," draws attention to the subtle signals and im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ies, inviting us to imagine alternative technological futures. *Bio Fresco* extends this inquiry to the boundaries between life and matter. Here, what "between" signifies is not merely an intermediary space. Rather, it connotes a site of encounter and exchange, where entities and domains conventionally understood as separate come into relation and shape one another.

On entering the exhibition, visitors first encounter **KIM Yunchul**'s *Argos-the Swollen Suns* (2022). A vast sensory device composed of 246 Geiger–Müller tubes clustered like flower buds or an insect's compound eyes, the work translates traces of muons traveling through the cosmos and reaching Earth into light and sound. There is no way to predict which particle will arrive or when; each chance collision creates a new sensory event. KIM calls this state, in which particles and devices become agents in artistic creation rather than mere objects, 'transmattering.'

Saudata (2026) by **Simon Lazarus 84 & s8jfou** combines audiovisual imagery created in real time through generative code with sculptural instruments made from mycelium, bioplastics, wood, and 3D-printed components. As visitors press, stroke, and play these instruments, the images and sound respond, while the living materials continue to grow at the pace of cellular growth, even after leaving the artists' hands. In this 'digital fresco,' which reveals an alchemy between living molecules and algorithmic pixels, visitors become active performers, touching, reclining, and playing as they become one with the work, rather than simply viewing it as passive spectators.

In **Dey KIM**'s *Channelling* (2026), visitors put on a wearable device and reach into an apparently empty space. Vibrations begin at their fingertips and spread through light and sound to the entire body, allowing them to sense that what they thought was empty is filled with a microbial cloud left by those who were there before. The Korean title, Jeopgyun ("contacting microbes"), recasts the sense of connection with invisible beings evoked by jeopsin ("contacting a spirit") as an encounter with microorganisms.

DISNOVATION.ORG's *A Bestiary of the Anthropocene* (2025) is an installation based on the book of the same title published in 2021. Borrowing the format of a medieval bestiary, it presents specimens of a "post-natural" era—fordite, chicken bones, surveillance robot dogs, antenna trees, eagles fighting drones, and standardized bananas—documenting a present in which the biosphere and technosphere are merging into a single hybrid body. Comprising twelve ceramic plates, Eating the Sun (2024) reconsiders political economy by tracing how solar energy circulates through the biosphere to sustain food, fuel, and infrastructure.

The first work visitors encounter on the second floor is **Le Clair Obscur**'s *Sleep for Earth* (2025–2026). It proposes a fictional United Nations program in which humanity enters stasis for approximately 200 years to halt its consumption and exploitation. Visitors experience those two centuries compressed into a single hour. With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combining guidance from generative AI with spatial audio, they become sleepers and dream. Generative AI draws images and sounds from their dreams, guiding the immersive experience. Is falling asleep a peaceful ecological practice, an act of resignation, or a subversion of consumer society through a refusal of its order? The work poses questions rather than offering answers. Without declaring XR and AI either saviors or catastrophes, it asks us to reconsider human action and responsibility for Earth's future.

JUNG Haejung's *Barnacles on the Nautilus* (2025) is a video work that approaches the sea from a barnacle's perspective through the novel 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s*. Combining live-action footage with digital animation, it rewrites history to include nonhuman beings in the contexts of industrialism, colonialism, and ecology. In the VR work *Becoming Sea Squirt* (2022), standing visitors become sea-squirt larvae swimming through the ocean; when they sit, they become adults rooted to the seafloor. Together, these two works turn the question "Who looks at the world?" on its head. Seen through the eyes of a nonhuman organism, histories centered on discovery and exploitation can be read differently, while the categories separating animal from plant and human from nonhuman begin to shift.

JUN Hyejoo's Delusion — How to Face the Lost Lives (2025) unfolds an unstable environment in which different forms of life combine across species boundaries with even weather and climate becoming entangled. Drawing on Donna J. Haraway's concept of the "Speakers for the Dead," JUN uses the symbiosis between orchids and the male bees they attract by mimicking females as a metaphor, suggesting that beings are formed amid accumulated relations. In Patterns of Confinement (2025) and Archive Table (2020–2025), by contrast, plants are set in resin and displayed as standardized cross-sections. Where the video reveals variation and entanglement, the sculptures expose the ways life is objectified and standardized.

Although the seven participating artists and groups employ distinct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and media, their practices converge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diverse beings and environments without positioning humanity as the sole measure of the world. Visitors perceive signals from otherwise invisible particles (KIM Yunchul), experience the presence of microorganisms through their bodies (Dey KIM), and encounter an installation in which biomaterials and algorithms interact (Simon Lazarus 84 & s8jfou). They view history and the sea from other organisms' perspectives (JUNG Haejung), reflect on the entanglements and symbiotic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JUN Hyejoo), and reconsider economic systems through the flow of energy within ecosystems (DISNOVATION.ORG). By taking part in a fictional program of sleeping for 200 years (Le Clair Obscur), they also reflect on humanity's present and future.

The exhibition neither positions nature and technology in opposition nor calls for the dissolution of all boundaries. Instead, it examines how different beings and systems are interconnected, and what becomes visible or remains obscured within these relationships. By what criteria is life classified and controlled? Whose needs does technology serve? To what extent do our everyday lives and economic systems depend on Earth's ecological conditions? Rather than offering definitive answers, the works invite visitors to consider these question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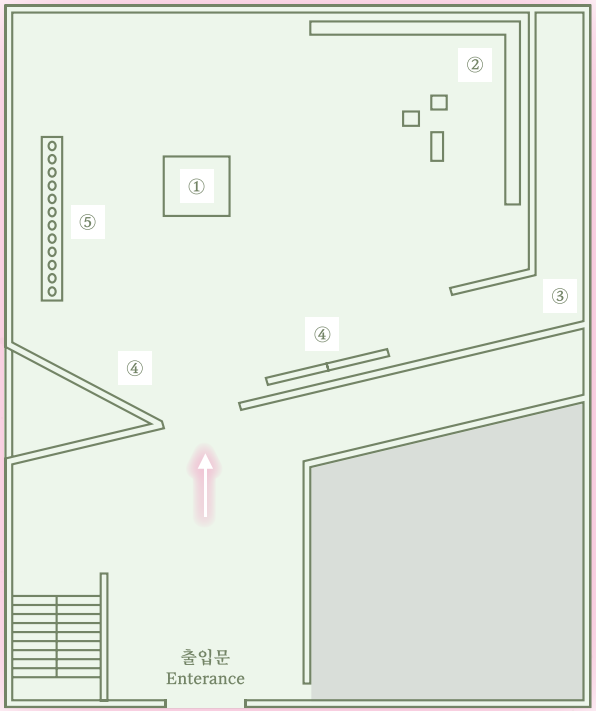
Where, and for what purposes, have the boundaries between matter and life, technology and nature, and human and nonhuman been drawn? We hope this dialogue among Korean and French artists brings to light the possibilities for connection hidden between and beyond these boundaries, and makes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a starting point for considering our shared future.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김윤철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김대희
디스노바시옹
클레르 옵스큐르
정혜정
전혜주

KIM Yunchul
Simon Lazarus 84 & s8jfou
Dey KIM
DISNOVATION.ORG
Le Clair Obscur
JUNG Haejung
JUN Hyejoo

1F



①
김윤철, 〈아르고스-부풀은 태양들〉, 2022
가이거 뮐러 튜브, 유리, 알루미늄, 마이크로 컨트롤러,
390 × 250 × 200cm.

②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사우데이터〉, 2026
인터랙티브 설치(비디오 프로젝션, 수신기, 사운드, 나무,
3D 프린팅, 바이오 플라스틱, 균류), 가변크기.

③
김대희, 〈접균〉, 2026
웨어러블 장치(마이크로컨트롤러, LRA 모터), 뎁스카메라,
DMX 조명, 스피커, 가변크기.

④
디스노바시옹, 〈인류세 도감〉, 2021-2026
복합매체(2채널 비디오, 오브제, 텍스트 및 이미지 패널,
도서 등) 설치, 가변크기.

⑤
디스노바시옹, 〈태양을 먹다〉, 2024-2026
도자기 접시에 이미지 전사, 지름 35cm(12).

①
KIM Yunchul, *Argos-the Swollen Suns*, 2022
Geiger-Muller tube, glass, aluminum, microcontroller,
390 × 250 × 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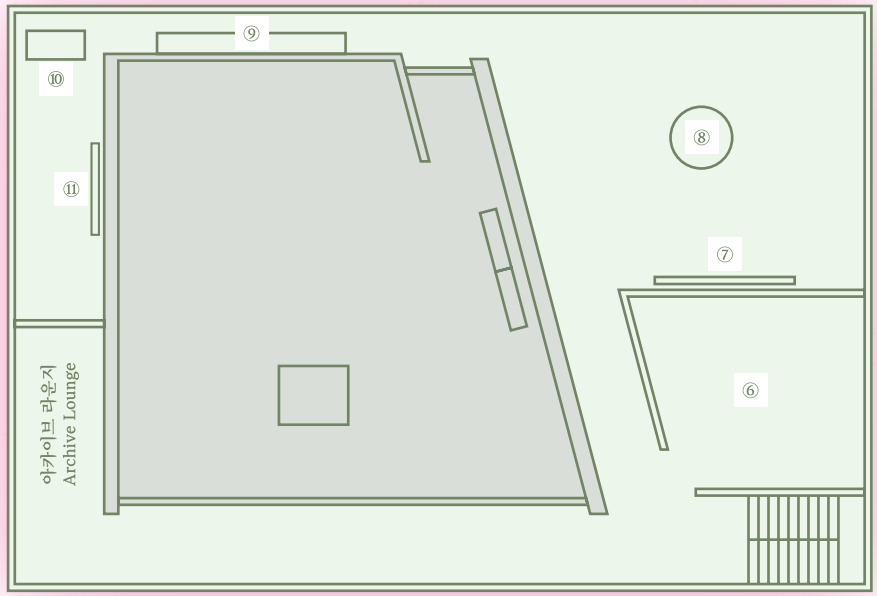
②
Simon Lazarus 84 & s8jfou, *Saudata*, 2026
interactive installation with video projection, receivers,
sound, wood, 3D-printed elements, bioplastic,
and fungi, variable dimensions.

③
Dey KIM, *Channelling*, 2026
wearable device (microcontroller, LRA motor),
depth camera, DMX lighting, speaker, dimensions variable.

④
DISNOVATION.ORG,
***A Bestiary of the Anthropocene*, 2021-2026**
mixed-media installation (2 channel video, objects,
text and image panels, book, et al.) dimensions variable.

⑤
DISNOVATION.ORG, *Eating the Sun*, 2024-2026
image decals on ceramic plates, diameter 35cm (12).

2F



⑥
클레르 옵스큐르, 〈지구를 위한 잠〉, 2025-2026
이머시브 설치, 가변크기.

⑦
정혜정, 〈노틸러스호의 따개비〉, 2025
디지털 영상, 실사 촬영 및 디지털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17분 18초.

⑧
정혜정, 〈멍게-되기〉, 2022
VR설치, 컬러, 사운드, 오큘러스, 카페트, 천, 조명, 지름
200cm, 약 10분.

⑨
전혜주, 〈아카이브 테이블〉, 2020-2025
수집된 자연물, 레진, 가변크기

⑩
전혜주, 〈결박의 패턴들〉, 2025
목재 진열장, LED, 도색한 식물, 절단한 레진(16),
텍스트와 드로잉을 각인한 아크릴 조각(6),
72 × 180 × 83cm.

⑪
전혜주, 〈망상 - 사라진 생명과 마주하는 법〉, 2025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30초.

⑥
Le Clair Obscur, *Sleep for Earth*, 2025-2026
immersive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⑦
JUNG Haejung, *Barnacles on the Nautilus*, 2025
digital video, live-action footage, and digital animation,
color, sound, 17min 18sec.

⑧
JUNG Haejung, *Becoming Sea Squirt*, 2022
VR installation, color, sound, Oculus, carpet, fabric,
lighting, diameter 200cm, approx. 10min.

⑨
JUN Hyejoo, *Archive Table*, 2020-2025
collected natural objects, resin, dimensions variable.

⑩
JUN Hyejoo, *Patterns of Confinement*, 2025
wooden display case, LED lights, painted plants,
cut resin (16), acrylic pieces engraved with
text and drawings (6), 72 × 180 × 83cm.

⑪
JUN Hyejoo, *Delusion - How to Face the Lost Lives*, 2025
2 channel video, color, sound, 10min 30 sec.

1

김윤철
KIM Yunchul



〈아르고스-부풀은 태양들〉, 2022
가이거 뮐러 튜브, 유리, 알루미늄, 마이크로 컨트롤러,
390 × 250 × 200cm.

Argos-the Swollen Suns, 2022
Geiger-Muller tube, glass, aluminum, microcontroller,
390 × 250 × 200cm.

〈아르고스 – 부풀은 태양들〉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 입자의 움직임을 빛과 소리로 감지하는 장치이다. 246개의 가이거 뮐러 튜브가 식물의 꽃봉오리나 곤충의 겹눈처럼 결합된 이 작품은 우주에서 지구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미립자 뮤온의 흔적을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예측할 수 없는 입자의 움직임은 빛과 소리로 나타나며, 관람객은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을 경험한다. 이때 자연에서 발생하는 입자와 인간이 만든 기술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낸다. 작품은 기술이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 도구를 넘어, 자연과 함께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품은 우연한 입자의 충돌을 기다리는 감각의 그물망이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신체처럼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입자의 흔적을 빛과 소리로 전달하는 과정은 물질이 스스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가 된다. 신화 속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에서 이름을 가져온 이 작품은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세계의 움직임을 드러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감각과 상상력을 열어준다.

김윤철은 작가이자 전자음악 작곡가로,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탐구해 왔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상상과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물질의 세계를 구현한다. 인간과 비인간, 기계와 재료를 구분하기보다 모두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며, 물질을 단순히 인간이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고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주체로 이해한다. 작가는 이러한 물질의 역동적인 변화와 관계의 상태를 '트랜스매터링(Transmattering)'이라 부른다.
작가는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2016 콜라이드 국제상(Collide International Award),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 VIDA 15.0 등 여러 국제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작품은 제59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비롯해 중국 798CUBE, 일본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스페인 CCCB, 호주 멜버른 사이언스 갤러리, 영국 FACT 리버풀, 독일 프랑크푸르터 쿤스트페어라인과 ZKM, 덴마크 코펜하겐 컨템포러리 등 세계 여러 미술 기관과 전시에서 소개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작가는 현재 서울에서 스튜디오 베스티지(Vestige)를 설립하여 이끌고 있다.

Argos-the Swollen Suns is a device that renders the movements of cosmic particles, imperceptible to human senses, as light and sound. Composed of 246 Geiger–Müller tubes clustered like flower buds or an insect's compound eyes, the work translates traces of muons—elementary particles that continually shower Earth from space—into forms that humans can perce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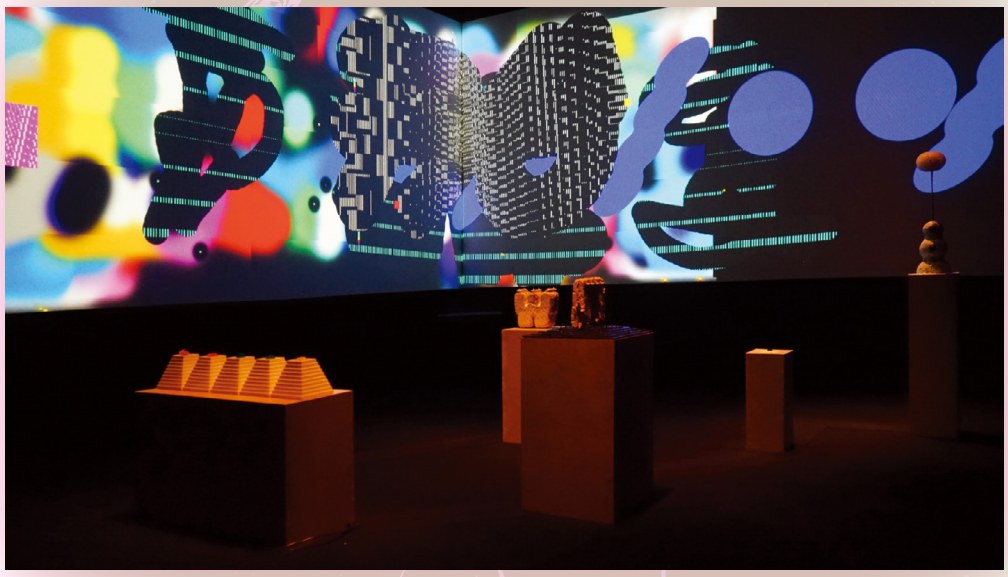
The unpredictable movements of these particles register as light and sound, allowing visitors to experience the activity of an otherwise invisible world. Particles occurring in nature and human-made technology converge to generate new sensations. The work suggests that technology can do more than observe nature: it can participate with nature in bringing new events into being.

The work operates as a sensory network awaiting chance particle collisions, and as a kind of body that crosses the boundary between human and nonhuman. In conveying invisible particle traces through light and sound, it gives form to a language through which matter expresses itself. Named after Argus, the hundred-eyed giant of Greek mythology, the work reveals movements of the world that have eluded our perception and opens new possibilities for sensing and imagining a future yet to come.

KIM Yunchul is an artist and electronic-music composer whose practice investigates how matter changes, interacts, and gives rise to new phenomena. His works materialize realms beyond the limits of human imagination and ordinary experience. Rather than separating humans from nonhumans or machines from materials, he regards them as equally consequential, understanding matter not as a passive object of human manipulation but as an agent capable of transformation and event-making. He calls these dynamic transformations and relational states "Transmattering."
KIM has received international honors including the 2016 Collide International Award from CERN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Prix Ars Electronica, and VIDA 15.0. His work has been presented at the Korean Pavilion of the 59th Venice Biennale; 798CUBE, China; the Yokohama Triennale, Japan; CCCB, Spain; Science Gallery Melbourne, Australia; FACT Liverpool, United Kingdom; Frankfurter Kunstverein and ZKM, Germany; and Copenhagen Contemporary, Denmark.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research projects and founded the Seoul-based studio Vestige, which he continues to direct.

2

시몽 라자루스 84 & 수이주푸
Simon Lazarus 84 & s8jfou



〈사우데이터〉, 2026
인터랙티브 설치(비디오 프로젝션, 수신기, 사운드, 나무, 3D 프린팅, 바이오 플라스틱, 균류), 가변크기.

Saudata, 2026
interactive installation with video projection, receivers, sound, wood, 3D-printed elements, bioplastic, and fungi, variable dimensions.

〈사우데이터〉는 시각예술가 시몽 라자루스 84와 음악가 수이주푸(s8jfou)의 인터랙티브 설치 프로젝트 〈디요토 오케스트라(Diyauto Orchestra)〉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이다. 제목은 상실과 희망, 우수와 행복한 기억 사이의 감정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사우다드(Saudade)'와 '데이터(Data)'를 결합한 말놀이다. 작품은 생성형 코드로 움직이는 오디오-비주얼 벽화(비디오 프로젝션)와, 미생물을 길러 만든 바이오 소재의 조각-악기들로 이루어진다. 관람객이 이 생장하는 조각-악기를 연주하면 그에 맞춰 새로운 영상과 음악이 생성된다. 작품은 관람객을 수동적인 자리에 두어 온 전통적 공연과 전시 방식에 질문을 던진다. 무대와 액자, 좌대가 만들어 온 넘을 수 없는 경계를 허물고 창작의 일부를 관람객에게 넘긴다. 작품은 완결된 결과물이 아니라 관람객의 탐험을 통해 깨어나는 하나의 환경이 된다. 여기에 확률과 무작위가 더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순간이 만들어진다. 관람객은 작품을 만지고 쓰다듬고 연주하며 쉬거나 춤출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살아 있는 분자와 알고리즘 픽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연금술을 목격하게 된다.

Saudata is the second work in the *Diyauto Orchestra* series of interactive installations by visual artist Simon Lazarus 84 and musician s8jfou. Its title combines the Portuguese "saudade"—a feeling poised between loss and hope, melancholy and happy memories—with "data." The installation comprises an audiovisual fresco animated by generative code and sculptural instruments made from biomaterials cultivated with microorganisms. When visitors play these growing instruments, their actions generate new images and music. Challenging conventional formats of performance and exhibition that position audiences as passive spectators, the work dismantles the seemingly impassabl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stage, frame, and plinth, handing part of the creative process to visitors. In doing so, the work becomes an environment awakened through the visitors' exploration, rather than a finished object. Probability and randomness produce moments that cannot be repeated. Visitors may touch, stroke, and play the work, or rest and dance within it, witnessing an alchemy between living molecules and algorithmic pixels.

시몽 라자루스 84는 2000년대 초 파리의 그래피티 신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회화 작업을 이어 가는 한편 비디오 매핑, 메이커 문화의 도구, 전자공학, 바이오 해킹 등 기술 실험을 통해 새로운 형식을 탐구한다. 상징과 추상 사이를 오가는 시각 언어는 가상의 이미지와 물질성이 긴장을 이루는 인터랙티브 설치, 비디오 프레스코,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로 구현된다. 팔레 드 도쿄, 리유 유니크 등 현대미술 공간과 비엔날레 크로니크, 스코피톤, 아스트로폴리스 등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리옹 빛 축제와 샤르자 라이트 페스티벌, 상하이, 몬트리올, 덴버 등 국내외 매핑 행사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릴 비디오 매핑 페스티벌에서 2023년 심사위원 대상, 2025년 혁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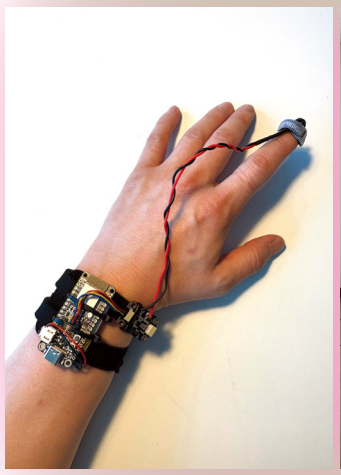
수이주푸는 독학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다. 이름은 프랑스어 "Suis-je fou? (내가 미친 걸까?)"의 발음에서 따왔다.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매료되었으며, 삶에서 플라스틱을 덜어내기로 하고 악기 역시 라이브에 꼭 필요한 신시사이저 정도만 사용한다. 디지털 음악을 누구나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돈을 들이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금속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도구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는 일에서 기쁨을 느낀다.

Simone Lazarus 84 began working in the Paris graffiti scene in the early 2000s. Alongside painting, he explores new forms through video mapping, maker tools, electronics, and biohacking. Moving between symbolism and abstraction, his visual language takes shape in interactive installations, video frescoes, and audiovisual performances that bring virtual images into tension with materiality. He has presented work at contemporary art venues including Palais de Tokyo and Le Lieu Unique; digital art festivals including Biennale Chronique(s), Scopitone, and Astropolis; Fête des Lumières in Lyon and Sharjah Light Festival; and mapping events in Shanghai, Montreal, and Denver. At the Video Mapping Festival in Lille, he received the Grand Prix du Jury in 2023 and the Innovation Award in 2025.

s8jfou is a self-taught musician whose name is derived from the sound of the French question "Suis-je fou?" ("Am I crazy?"). He is fascinated by synthesizers and computer hardware. He has also decided to reduce plastic in his life and uses only the instruments essential to a live performance, chiefly synthesizers. He seeks to make digital music freely accessible, finding pleasure in creating and sharing tools at no cost and without generating plastic or metal waste.

3

김대희
Dey KIM







〈접균〉, 2026
웨어러블 장치(마이크로컨트롤러, LRA 모터), 뎁스카메라, DMX 조명, 스피커, 가변크기.

***Channelling*, 2026**
wearable device (microcontroller, LRA motor), depth camera, DMX lighting, speaker, dimensions variable.

〈접균〉은 우리를 둘러싼 미생물과의 신체적 접촉과 대면을 시도하는 작품이다. 관람객이 웨어러블 장치를 착용하고 비어 있는 공간을 향해 손을 뻗으면, 장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흔적을 손끝의 미세한 진동으로 전달한다. 이 진동은 빛과 소리로 확장되며, 관람객은 앞서 그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몸이 남긴 미생물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작품 제목 '접균(接菌)'은 비가시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접신(接神)의 개념을 미생물과의 접촉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거의 몸이 남긴 미생물의 흔적과 현재 관람객의 신체가 연결되는 경험은 인간과 미생물, 개인과 환경 사이의 경계를 흐린다. 작품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미생물 및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생태적 몸의 일부로서 서로 공명하고 얽혀 있음을 드러낸다.

Channelling attempts a bodily encounter with the microorganisms that surround us. When visitors put on a wearable device and reach into an apparently empty space, subtle vibrations at their fingertips convey traces of invisible microbes. These vibrations extend into light and sound, allowing visitors to sense traces left by the bodies of people who occupied that space before them. The Korean title of *Channelling*, Jeopgyun ("contacting microbes"), recasts the term jeopsin ("contacting a spirit") as an encounter with microorganisms. Linking traces left by past bodies to the visitor's body in the present, the experience blurs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microbe, individual and environment. Through this sensory encounter, the work reveals humans not as beings apart from microbes and their surroundings, but as parts of a larger ecological body, resonating and entangled with one another.

김대희는 인간과 미생물, 환경의 얽힘을 탐구하는 바이오-사운드 아티스트이자 음악가다. 환경공학 연구자로 미생물을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학적 이론과 기술적 접근을 넘어서는 감각의 영역을 상상한다. 미생물을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흐리는 존재로 바라보며, 미생물의 흔적과 신호 사이에 몸을 놓고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 공생의 감각을 되찾고자 한다. 소리와 진동, 빛과 맛을 매개로 미생물을 감각하게 하는 설치, 퍼포먼스, 워크숍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는 누군가 남기고 간 미생물 구름을 손끝의 진동으로 감각하는 〈접균〉(2026), 발효의 맛을 소리로 함께 듣는 〈새콤한 와인 미청각회〉(2025), 유산균을 작은 구원자로 경배하는 〈작은 메시아〉(2023), 버섯의 생체 신호와 함께 연주하는 〈미시적 연결 감각〉(2022) 등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인천아트플랫폼, 제로원, 파라다이스아트랩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음악가로서는 노이즈, 앰비언트, 필드 레코딩을 기반으로 전자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며, 콜렉티브 모듈라서울과 자유즉흥음악 트리오 삼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ey KIM is a bio-sound artist and musician who explores the entanglements of humans, microorganisms, and environments. Drawing on experience working with microbes as an environmental-engineering researcher, KIM imagines sensory domains beyond biological theory and technical procedure. KIM regards microorganisms as beings that unsettle the boundary between humanity and nature, and seeks to recover a sense of symbiosis by placing the body in relation to microbial traces and signals. The resulting installations, performances, and workshops make microbes perceptible through sound, vibration, light, and taste. Works include *Channelling* (2026), which conveys another person's lingering microbial cloud through vibrations at the fingertips; *Acidic Note* (2025), in which the taste of fermentation is heard together; *micromessiah* (2023), which reveres lactic-acid bacteria as small saviors; and *Microscopic Sense of Connection* (2022), a performance with the bioelectrical signals of mushrooms. KIM has presented work at the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CC), Incheon Art Platform, ZER01NE, and Paradise Art Lab. KIM also composes and performs electronic music informed by noise, ambient music, and field recording, and belongs to the collective Modular Seoul and the free-improvisation trio saaamkiiim.

4

디스노바시옹
DISNOVATION.ORG



〈인류세 도감〉, 2021-2026
복합매체(2채널 비디오, 오브제, 텍스트 및 이미지 패널, 도서 등)
설치, 가변크기.

A Bestiary of the Anthropocene, 2015-2026
mixed-media installation (2 channel video, objects,
text and image panels, book, et al.) dimensions variable.

한국어 자막 번역: 김혜진 | 한국어 자막 제작 지원: 인천아트플랫폼

Korean Subtitle Translation: KIM Hyejin |
Korean Subtitle Production Support: Incheon Art Platform

〈인류세 도감〉은 2021년 출간된 동명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책은 중세 동물 도감의 형식을 빌려 훼손된 지구에 대한 관찰 기록과 오늘날의 혼종 생명체를 삽화와 함께 수록한 것으로, 세계가 점점 인공적으로 변해 가는 시대에 주변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한 현장 안내서로 기능한다. 플라스티글로머레이트(플라스틱과 암석이 결합한 물질), 포다이트(자동차 페인트 층이 굳어 형성된 물질), 감시용 로봇 개, 인조 잔디, 안테나 나무, 코로나19 바이러스, 잘려 나간 산, 드론과 싸우는 독수리, 규격화된 바나나는 모두 급격히 변화하는 '탈자연적' 시대의 징후다. 이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작품은 생물권과 기술권이 결합해 새로운 혼종적 신체를 이루는 순간을 포착한다. 기술과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자연과 인공의 구분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유기물과 합성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 지구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들이 출현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태양을 먹다〉는 지구 생명체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가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가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열두 점의 도자기 접시에는 고대 예언서의 삽화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과학적 도식이 전사되어 있다. 이 이미지들은 인간의 활동을 생물권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조명한다. 식량과 재료, 연료, 기반 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생명체가 태양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 의존하며, 일부는 인간의 시간 척도를 넘어 형성되는 지질학적 자원에 기반한다. 작품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 생태계에서 변환되고 순환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재고하도록 제안한다. 지구의 생명 시스템에 의존하는 인간 사회가 생태적 영향을 줄이고 다른 존재들과 보다 지속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A Bestiary of the Anthropocene is based on the book of the same title published in 2021. Adopting the format of a medieval bestiary, the book assembles illustrated observations of a damaged Earth and its contemporary hybrid life-forms. It functions as a field guide for observing and understanding our surroundings in an increasingly artificial world. Plastiglomerate (plastic fused with rock), fordite (hardened layers of automobile paint), surveillance robot dogs, artificial turf, antenna trees, the COVID-19 virus, amputated mountains, eagles fighting drones, and standardized bananas are all symptoms of a rapidly changing "post-natural" era. They proliferate around us and live alongside humans, often without our noticing. The work captures a moment when the biosphere and technosphere converge into new hybrid bodies. If technology and its unintended consequences permeate everyday life so deeply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becomes blurred, the work asks how we might live in an environment composed of organic and synthetic matter, and what new beings are emerging on Earth today.

Eating the Sun examines how solar energy, the fundamental energy source for life on Earth, relates to the sustainability of human societies and to economic value. Twelve ceramic plates bear transferred images and scientific diagrams reminiscent of illustrations in ancient prophetic texts. Together, they situate human activity within the material and energetic cycles of the biosphere. Food, materials, fuels, and infrastructure—the elements that sustain human life—depend on the transformation of solar energy by living organisms; some also draw on geological resources formed over timescales far exceeding human experience. Tracing the transformation and circulation of solar energy through Earth's ecosystems, the work invites us to reconsider anthropocentric notions of sustainability. It asks what forms of economic value and ways of living might enable societies dependent on Earth's living systems to reduce their ecological impact and coexist more sustainably with other beings.



〈태양을 먹다〉, 2024-2026
도자기 접시에 이미지 전사, 지름 35cm(12).

기획: 디스노바시옹 | 도자기 현지 제작(기술협력): 엄기성 |
제작지원: 인천아트플랫폼

Eating the Sun, 2024-2026
image decals on ceramic plates, diameter 35cm (12).

Conception: DISNOVATION.ORG |
Local Production of Ceramics (technical collaboration): EUM Kixung |
Production Support: Incheon Art Platform

디스노바시옹은 2012년 파리에서 결성된 리서치 콜렉티브로, 마리아 로슈코프스카(폴란드), 니콜라 매그레(프랑스)와 바루흐 고틀립(캐나다/독일)이 핵심 구성원이다. 이들은 현대미술과 연구, 해킹을 결합해 생태·사회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에너지, 생태, 경제를 주제로 대규모 실험적 작업을 선보이며,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미래를 상상하도록 유도한다. 예술·정치·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해 왔으며, 저서로 니콜라 노바와 공동 출간한 『인류세 도감』(2021, 오노마토페)과 『해적 책』(2015, 악시오마)이 있다. 이들의 작품은 파리 팔레 드 도쿄, 퐁피두 센터,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카를스루에 ZKM, 린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바젤 HEK 등 국제 주요 기관에서 전시되었다. 또한 「포브스」, 「와이어드」, 「바이스」, 「리베라시옹」, 「하이퍼알러직」 등 다양한 국제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다.

Founded in Paris in 2012, **DISNOVATION.ORG** is a research collective whose core members include Maria Roszkowska (PL), Nicolas Maigret (FR), and Baruch Gottlieb (CA/DE). Combining contemporary art, research, and hacking, the collective critically examines ecological and social issues. Its large-scale experimental works address energy, ecology, and economics while inviting audiences to imagine futures beyond prevailing assumptions. Working at the intersection of art, politics, and science, the collective has contributed to critical discourse through publications including *A Bestiary of the Anthropocene* (2021, Onomatopee), co-authored with Nicolas Nova, and *The Pirate Book* (2015, Aksioma). Its work has been exhibited at Palais de Tokyo and Centre Pompidou in Paris, Haus der Kulturen der Welt in Berlin, ZKM in Karlsruhe, Ars Electronica in Linz, and HEK in Basel, among other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has also been featured in Forbes, Wired, Vice, Motherboard, Libération, Die Zeit, Arte, Next Nature, Hyperallergic, Le Temps, Neural, Digicult, Gizmodo, and Filmmaker Magazine, among others.

5

클레르 옵스큐르
Le Clair Obscur



〈지구를 위한 잠〉, 2025-2026
이머시브 설치, 가변크기.

Sleep for Earth, 2025-2026
immersive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기획 및 연출: 프레데릭 데슬리아 | **저자**: 리캄 |
세트 디자인 & 3D: 파트리스 뮈니에 & 폴 노르 스튜디오 |
사운드 디자인: 프레데릭 데슬리아, 페리그 빌레르뷔, 시몽 갸레트 |
프로덕션: 폴에밀 스클러 | **기술운영**: 이폴리트 비아니 |
한국어 자막 번역: 이슬아 | **한국어 더빙 및 자막 제작 지원**: 인천아트플랫폼

Concept & Direction: Frédéric Deslia | **Author**: Li-Cam |
Set Design & 3D: Patrice Mugnier & Pole Nord Studio |
Sound Design: Frédéric Deslia, Perig Villerbu, Simon Garrette |
Production: Paul-Émile Skler | **Technical Operations**: Hippolyte Viannay |
Korean Subtitle Translation: LEE Seula |
Korean Dubbing and Subtitle Production Support: Incheon Art Platform

〈지구를 위한 잠〉은 과학적 가설과 공상과학적(SF) 상상력을 결합하여, 인류가 지구의 생태적 한계와 소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년간 잠에 들도록 제안하는 가상의 유엔 프로그램을 설정한 몰입·체험형 작품이다. 작품은 전시장 안에서 관객을 이원화된 두 그룹으로 나누며 독특한 몰입을 이끌어낸다. 체험자-수면자(sleeper)들이 빈백에 누워 3D 사운드스케이프가 이끄는대로 '자각몽'을 청하며 미래의 세계를 꿈꾸면, 의자에 앉은 관찰자(watcher)들은 이들의 무의식 데이터가 시각화된 오디오 비주얼 벽화(영상)를 보며 지구의 운명을 가늠해 보는 구조이다.

작품은 수면(stasis)을 소비와 생산의 흐름에서 벗어나 세계를 다시 사유하기 위한 급진적인 멈춤의 은유로 제시한다. 인류와 지구가 맞은 위기 앞에서 '행동' 대신 '멈춤'을, '개발' 대신 '스테이시스(정지, 동면)'을 선택하라는 이 기묘한 제안은 관람객을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 놓인 감각적 경험으로 이끈다. 그 경험 속에서 관람객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돌아보고, 지구와 인류가 함께 맞이할 미래를 집단적으로 상상하게 된다.

Combining scientific hypotheses with science-fictional imagination, *Sleep for Earth* posits a fictional United Nations program proposing that humanity sleep for 200 years to escape the pressures of consumption and the constraints of Earth's ecological limits. This immersive, participatory installation divides its audience into two groups. Participants designated as sleepers recline on beanbags and enter a "lucid dream" guided by a three-dimensional soundscape, imagining a future world. Seated watchers observe an audiovisual fresco that visualizes the sleepers' unconscious data and try to discern what might become of Earth.

The work presents sleep, or stasis, as a metaphor for a radical pause: a departure from cycl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at might allow us to rethink the world. Faced with the crises confronting humanity and the planet, its strange proposal favors "stopping" over "acting" and "stasis" over "development." The resulting sensory experience places visitors at the threshold of reality and fiction, inviting them to reconsider anthropocentric views and reliance on technology, and to imagine collectively the future that humans and Earth might share.

클레르 옵스큐르는 연극과 설치미술의 기존 형식을 전복하는 몰입형 공연을 창작한다. 디지털 아트, 디자인,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 비롯된 서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일상과 거리를 둔 대안적 현실을 경험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질문하는 장을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의 혁신, 생태, 타자성, 기억,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무는 공간 구성 속에서 관객은 무대에 직접 들어가 탐색 임무를 수행하거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관객과 창작자, 연구자의 다양한 관점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기술은 창의적으로 전복되며, 관객과 작품의 관계 또한 새롭게 확장된다. 클레르 옵스큐르는 2002년 설립 이후 극장, 미술관, 천문관, 디지털 아트 행사 등 다양한 공간에서 20편 이상의 작품을 선보였다. 예술감독 프레데릭 데슬리아는 르큐브와 라씬나시오날 61의 협력 예술가로 활동하며, 오늘날과 미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예술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Le Clair Obscur creates immersive performances that subvert established forms of theater and installation art. Drawing on narratives and advanced technologies from digital art, design, film, and video games, the company constructs alternative realities at a remove from everyday life and opens a space for questioning present and future possibilities. Its work investigates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ecology, otherness, mem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the cosmos. In spatial arrangements that dissolve the division between stage and auditorium, audiences enter the performance space to undertake exploratory missions or participate in research. As the perspectives of audiences, creators, and researchers converge, technology is imaginatively repurpos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work and audience expands. Since its founding in 2002, Le Clair Obscur has presented more than twenty works in theaters, museums, planetariums, and digital art events. Artistic director Frédéric Deslias is an associate artist with Le Cube and La Scène Nationale 61, continuing an artistic inquiry into ways of living today and in the future.

6

정혜정
JUNG Haejung



〈노틸러스호의 따개비〉, 2025
디지털 영상, 실사 촬영 및 디지털 애니메이션, 컬러, 사운드, 17분 18초

Barnacles on the Nautilus, 2025
digital video, live-action footage, and digital animation, color, sound, 17min 18sec.

〈노틸러스호의 따개비〉는 쥘 베른의 SF 고전 『해저 이만리』의 서사를 경유하며 따개비의 시점으로 바다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소설을 배경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의 시공간을 연결하며 산업주의, 식민주의, 생태주의의 맥락에서 비인간존재를 포함한 새로운 역사 다시쓰기를 시도한다. 따개비라는 탈식민주의적 렌즈를 통해 출발한 질문은 자연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 발견과 착취, 미래의 바다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며, 환상과 은유의 시각적 장치를 사용하여 역사와 이야기를 재구성한다. 이 작업은 수많은 몸들의 이동과 얽힘이 교차하는 장소로 바다를 재사유하며, 나아가 바다를 둘러싼 국가적·시간적 영토 개념의 경계를 확장한다.

〈멍게-되기〉는 멍게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에서 영감을 얻었다. 멍게의 유생은 뇌, 후각, 안점, 지느러미, 신경, 척삭 등 고등 기관을 가진 동물이다. 유생 시기에는 척추동물의 태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성장하면서 스스로 기관을 소화시켜버리고 퇴화한다.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친 후 뇌의 일부만 남겨둔 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된다. 멍게는 동물과 식물을 선택할 수 있고, 성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성생식, 무성생식이 가능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에 대한 통념과는 거리가 먼 객체로, 인간의 관점이나 시스템, 관습을 해체하는 대상으로서 차용한다. VR기기를 쓰고 서 있을 때 유생일 때의 멍게가 되어 바다를 유영하다가, 앉으면 식물화되는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되며 뿌리를 내리고 전기신호와 소리로 감각하는 멍게 성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한 상영되는 VR 매체의 구조 안에서 관객은 '멍게'라는 새로운 신체를 부여받고, 신체의 경계에 대한 관념을 재고하기를 제안한다.

Barnacles on the Nautilus began as an attempt to see the sea from a barnacle's perspective, taking Jules Verne's science-fiction classic Twenty Thousand Leagues Under the Seas as a point of departure. Moving through the novel, it connects past, present, and future in an effort to rewrite history—including nonhuman beings—in the contexts of industrialism, colonialism, and ecology. The barnacle becomes a postcolonial lens through which questions of ignorance and curiosity about nature, discovery and exploitation, and imagined futures for the sea unfold. Using visual devices of fantasy and metaphor, the work reconfigures history and narrative. It rethinks the sea as a site where the movements and entanglements of countless bodies intersect, expanding the boundaries of national and temporal concepts of maritime territory.

Becoming Sea Squirt draws on the sea squirt's unusual biological characteristics. Its larva is an animal with a brain, olfactory organs, eyespots, fins, nerves, and a notochord. During the larval stage, it differs little from a vertebrate embryo; as it matures, it digests its own organs and undergoes regression. After a period of growth, it retains only part of its brain, takes root on the seafloor, and becomes a plant. The sea squirt can choose between animal and plant states, has no sex, and can reproduce both sexually and asexually. As an entity far removed from conventional ideas of life, it is invoked to unsettle human perspectives, systems, and habits. Wearing a VR headset, visitors stand and become sea-squirt larvae swimming through the ocean; when they sit down, the scene shifts toward plant life, and they experience becoming adult sea squirts that take root and sense their surroundings through electrical signals and sound. Within the VR work's endlessly looping structure, audiences are given a new body—the "sea squirt"—and invited to reconsider the boundaries of their own.



〈멍게-되기〉, 2022
VR설치, 컬러, 사운드, 오큘러스, 카페트, 천, 조명,
지름 200cm, 약 10분.

Becoming Sea Squirt, 2022
VR installation, color, sound, Oculus, carpet, fabric, lighting,
diameter 200cm, approx. 10min.

정혜정은 디지털 공간의 오류, 버그, 글리치 등을 활용해 익숙한 인식을 흔들고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을 탐구하는 시각예술가이다. 바다와 해양생물에 대한 리서치와 필드 트립을 바탕으로, 3D 애니메이션, 설치, VR 등의 매체를 통해 자연, 문화, 기술, 물질의 관계를 탐색하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얽힌 세계를 조명해왔다. 최근에는 생태적 지식과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구전과 삶의 경험, 장소에 축적된 지식을 디지털 환경으로 번역하고, 서로 다른 시간과 세대,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만나는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모색한다. 2026년 호주 Now or Never Festival 미디어 파사드 부문과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창작산실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 현대퓨쳐넷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수상, 2021년 대안공간 루프 작가 선정 등의 이력이 있다. 주요 참여 전시로는 《제9행성》(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2024), 《아마도 애뉴얼날레》(아마도예술공간, 2024), 《누구의 숲 누구의 세계》(대구미술관, 2024), 《반디산책》(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2) 등이 있다.

JUNG Haejung is a visual artist who uses errors, bugs, and glitches in digital space to unsettle familiar perceptions and explore sensations that cross boundaries. Grounded in research and fieldwork on the sea and marine life, JUNG's 3D animation, installations, and VR works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nature, culture, technology, and matter, illuminating worlds in which human and nonhuman beings are entangled. More recently, JUNG has turned to how ecological knowledge and memory pass between generations. Translating oral accounts, lived experience, and knowledge accumulated in places into digital environments, the artist seeks new sensory encounters across times and generations, and between human and nonhuman beings. JUNG was selected for the media-facade program of Australia's Now or Never Festival in 2026 and the Arts Council Korea's multidisciplinary arts production program in 2025; received a Hyundai Futurenet Media Art Project award in 2024 and was selected as an artist by Alternative Space LOOP in 2021. Selected exhibitions include *Planet Nine* (Seoul Museum of Art, Nam-Seoul Museum, 2024), *Amado Annualnale* (Amado Art Space, 2024), *Whose Forest, Whose World* (Daegu Art Museum, 2024), and *Bandi Walk*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2022).

7

전혜주
JUN Hyejoo



〈망상 - 사라진 생명과 마주하는 법〉, 2025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30초.

Delusion - How to Face the Lost Lives, 2025
2 channel video, color, sound, 10min 30 sec.

〈망상 - 사라진 생명과 마주하는 법〉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비인간적 존재들과 이에 얽힌 생태를 조망하는 작품이다. 영상에서는 종의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생명이 결합하고 생성되면서 날씨와 기후마저 뒤섞인 채 불안정한 환경을 형성한다. 작가는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생물학자 도나 J. 해러웨이(Donna J. Haraway)가 언급한 사자의 대변인(Speakers for the Dead)'의 개념을 참조해 인간과 비인간이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서로 얽힌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로 난초와 벌의 공생 관계를 제시하는데, 일부 난초는 꽃잎의 무늬, 색깔, 털의 질감까지 암컷 벌과 흡사하게 모방함으로써 수컷 벌을 유인하고, 벌은 짝짓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이동시키며 난초의 번식을 매개하게 된다. 이러한 공생의 구조를 통해 존재란 단일하고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사라진 존재들의 흔적과 관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존 역시 고정된 상태가 아닌 외부 환경과 신체의 반응 속에서 끊임없이 변이를 거듭하는 과정으로 제시한다.

생명을 대상화하고 모듈화하기 시작한 인간은 불확실성의 동결, 시간의 지연, 선택적 생식이라는 비자연적인 기술들을 다양한 생명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결박의 패턴들〉 진열장에 전시된 레진 조각 속 식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되어 단면을 드러내며 다시 조립가능한 모듈처럼 멈춰 서 있다. 마치 비석을 떠올리게 하는 몇 장의 조각들을 진열장에서 꺼내 선반위에 올려 놓으면, 그 단면 위에는 작가가 쓴 글 귀와 드로잉 이미지가 드러나며, 이들은 고유한 육체로서의 생명이 자본의 흐름 속에서 몸부림치는 번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카이브 테이블〉에는 2020년 부터 최근까지 작가가 작업의 과정에서 수집해 온 식물과 미립자 등의 유기물들 중 일부가 진열되어 있다. 테이블 한 쪽에는 다양한 표본 작업의 확장형처럼 보이는 식물을 레진에 넣어 절단한 〈망상된 불멸〉(2025)이 있다.

Delusion - How to Face the Lost Lives surveys nonhuman beings beyond human control and the ecologies in which they are entangled. In the video, different forms of life combine and emerge across species boundaries; even weather and climate become entangled, forming an unstable environment. Referring to the concept of the "Speakers for the Dead" discussed by feminist theorist and biologist Donna J. Haraway, the artist considers how humans and nonhumans take shape through entangled relations rather than as independent ent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chids and bees serves as a metaphor: some orchids mimic female bees down to the patterns, colors, and hairlike textures of their petals, attracting males that carry pollen as they attempt to mate and thus mediate the orchids' reproduction. Through this structure of symbiosis, the work suggests that beings are neither singular nor self-contained, but formed amid accumulated relations and traces of lives that have disappeared. Survival, too, emerges not as a fixed condition but as an ongoing process of variation through bodily responses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humans began to objectify and modularize life, they applied unnatural techniques—the freezing of uncertainty, the deferral of time, and selective reproduction—to living beings. The plants embedded in resin pieces displayed in the cabinet of *Patterns of Confinement* have been cut at regular intervals, exposing their cross-sections; the pieces seem suspended like modules awaiting reassembly. When a few pieces resembling gravestones are removed from the cabinet and placed on a shelf, the texts and drawn images the artist placed on their cut surfaces become visible. They speak of the anguish of living beings with bodies of their own, struggling within the currents of capital.

Archive Table displays a selection of organic materials, including plants and particulates, that the artist has collected in the course of her work from 2020 to the present. Also on display is *Delusions of Immortality* (2025), in which a plant embedded in resin is cut into sections, as though extending the artist's specimen-based practice.

전혜주는 수집된 물질, 이미지, 소리를 활용한 시청각 미디어로 설치 작품을 만든다. 생태계의 횡단성과 순환성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중에 존재하며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미립자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연 및 인공의 입자들을 빛과 파동의 형태로 재현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따른 작용과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침투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최근에는 꽃가루를 포함한 공기 중의 미립자를 통해 감춰진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거나 생물자원을 다루는 전세계적 산업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2014년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에서 아트 앤 미디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2015년 같은 학교에서 마이스터슐러 자격을 취득했다. 《엔도스코페이아》(송은, 서울, 2026), 《결박의 패턴들》(쉬, 인천, 2025), 《망상 - 사라진 생명과 마주하는 법》(수림큐브, 서울, 2025), 《All-Over》(문화비축기지, 서울, 2022)을 포함한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2024), SeMA 옴니버스 《끝없이 갈라지는 세계의 끝에서》(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24), 아르코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아르코미술관, 서울, 2021) 등 단체전에 참여, 그 외 《제22회 송은미술대상》(송은, 서울, 2022) 대상을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송은문화재단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JUN Hyejoo creates installations using audiovisual media and collected materials, images, and sounds. Interested in the transversality and cyclicality of ecosystems, JUN investigates airborne particulates that we breathe and that travel across the globe. Using a range of media, JUN renders natural and artificial particles as light and waves, revealing the effects of invisible movement and how such particles infiltrate human bodies and come to govern people's thinking. More recently, this practice has used airborne particles, including pollen, to uncover obscured histories and examine global industrial systems governing biological resources. JUN received an MA in Art and Media from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in 2014 and completed the Meisterschüler program there in 2015. Solo exhibitions include Endoskopeia (SONGEUN, Seoul, 2026), *Patterns of Confinement* (shhh, Incheon, 2025), Delusion - How to Face the Lost Lives (Soorim Cube, Seoul, 2025), and All-Over (Oil Tank Culture Park, Seoul, 2022).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15th Gwangju Biennale, *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2024); SeMA Omnibus, *At the End of the World Split Endlessly* (Seoul Museum of Art, 2024); and the 2021 ARKO Art & Tech Festival, *Nothing Makes Itself* (Arko Art Center, Seoul, 2021). JUN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22nd SONGEUN Art Award in 2022, and JUN's work is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MMCA Art Bank, Seoul Museum of Art, and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결박의 패턴들〉, 2025
목재 진열장, LED, 도색한 식물, 절단한 레진(16),
텍스트와 드로잉을 각인한 아크릴 조각(6), 72 × 180 × 83cm.

***Patterns of Confinement*, 2025**
wooden display case, LED lights, painted plants,
cut resin (16), acrylic pieces engraved with text and
drawings (6), 72 × 180 × 83cm.



〈아카이브 테이블〉, 2020-2025
수집된 자연물, 레진, 가변크기

***Archive Table*, 2020-2025**
collected natural objects, resin, dimensions variable.

전시연계 프로그램

† **아티스트 토크**
〈사이에서 말하다 – 물질과 생명, 그 경계의 대화〉

2026.11.21.(토) 14:00–18:00
예술교육라운지(A)

† **김대희 작가 워크숍 〈탐균 클럽〉**

1회차
2026.11.29.(일)
- 13:30–15:00(초등 3-4학년 대상)
- 16:00–18:00(성인 대상)

예술교육라운지(A)

2회차
2026.12.06.(일)
- 13:30–15:00(초등 3-4학년 대상)
- 16:00–18:00(성인 대상)

예술교육라운지(A)

* 1, 2회차 모두 참석 필수

† **프랑스 그림책 전시**

2026.11.19.(목) — 2027.01.31.(일)
10시-18시, 예술그림책정원(H)

그림책 연계 워크숍 ①
〈조이 콩스탕 작가 『목탄』 연계 드로잉:
"물질(숯)에서 예술(생명)로"〉

2026.11.22.(일) 14:00–16:00
예술그림책정원(H)

그림책 연계 워크숍 ②
〈바다의 시간: 씨글라스와 조개껍질
업사이클링 모빌 만들기〉

2026.12.5.(토) 14:00–16:00
예술그림책정원(H)

※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인천아트플랫폼 홈페이지 및 SNS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Exhibition Related Programs

† **Artist Talk**
Voices from the In-Between:
A Dialogue Between Matter and Life

Saturday, November 21, 2026,
2:00–6:00 p.m. · Arts Education Lounge (A)

† **Dey KIM Workshop:**
Microbe Exploration Club

Session 1
Sunday, November 29, 2026
- Grades 3–4: 1:30–3:00 p.m.
- Adults: 4:00–6:00 p.m.

Arts Education Lounge (Building A)

Session 2
Sunday, December 6, 2026
- Grades 3–4: 1:30–3:00 p.m.
- Adults: 4:00–6:00 p.m.

Arts Education Lounge (Building A)

* Participants must attend both sessions.

† **French Picture Book Exhibition**

November 19, 2026–January 31, 2027
10:00 a.m.–6:00 p.m. · Art Book Space (H)

Picture-Book Workshop 1
Drawing Inspired by Zoé Constans's
***Charcoal* — "From Matter (Charcoal)**
to Art (Life)"

Sunday, November 22
2026, 2:00–4:00 p.m. · Art Book Space (H)

Picture-Book Workshop 2
Time of the Sea — Make an Upcycled Mobile
with Sea Glass and Seashells

Saturday, December 5, 2026
2:00–4:00 p.m. · Art Book Space (H)

※ For participation details, please check the Incheon Art Platform website and social media channels.

2026–2027 인천아트플랫폼 기획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전시

2026–2027 Incheon Art Platform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40th Anniversary of
Korea–France Diplomatic Relations

《바이오 프레스코 – 물질과 생명 사이》

2026. 11. 19.(목) – 2027. 1. 31.(일)

BIO FRESCO – Between Matter and Life

November 19 (Thu), 2026 – January 31 (Sun), 2027

기획
이영리

진행
이태현, 지민주

그래픽 디자인
마빈 킴

공간디자인
무진동사

공간조성
현디자인

작품 운송 및 설치
큐비스

영상 및 음향 장비
한스타임

글 작성 및 편집
이영리

번역
더라이터스

홍보물 제작 설치
아트엠

인쇄
아트엠

주최
(재)인천문화재단

주관
인천아트플랫폼

후원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프랑스 해외문화진흥원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공규현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Curated by
LEE Young-ri

Coordinated by
LEE Taehyun, JI Minjoo

Graphic Design
Marvin KIM

Scenography
mujindongsa

Space Construction
HYUN Design

Art Works Transportation &
Installation
Qbis Art

AV Equipment
Hans Time

Text Writing & Editing
LEE Young-ri

Translation
The Writers

Publicity Materials
and Printing
Art M

Hosted b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FAC)

Organized by
Incheon Art Platform

Supported by
French Institute in Paris,
Cultural Service of
the Embassy of Fr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CEO of IFAC
LEE JongKwan

Art Director of IAP
KONG Gyu-Hyeon

Team Leader of IAP
LEE Young-ri

인천아트플랫폼
(2231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18번길 3
032.76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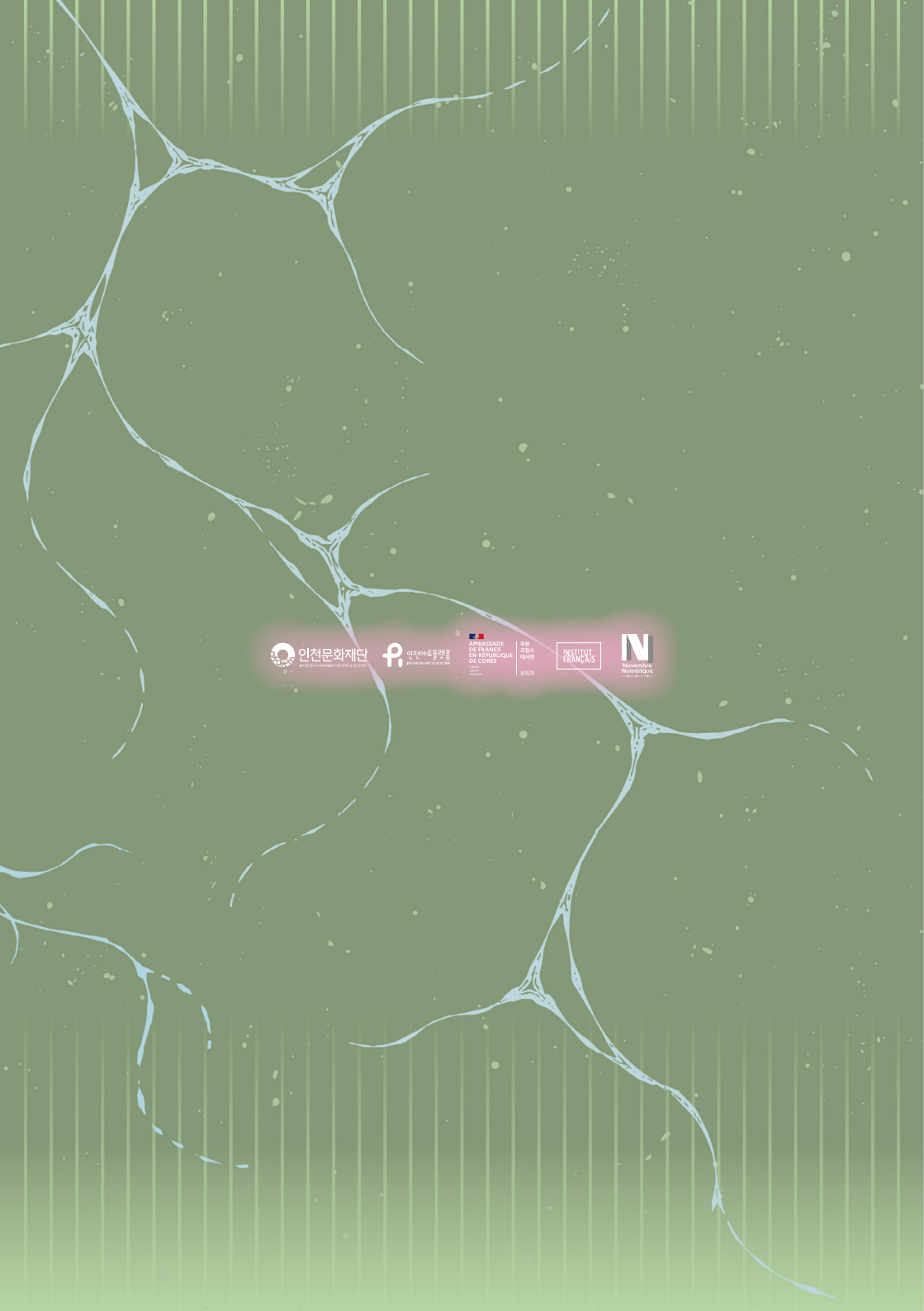
Incheon Art Platform
3, Jemullyang-ro 218beon-gil, Jemulpo-gu, Incheon 22314,
Republic of Korea
+82 (0)32 760 1000

후원사
MÉCÈNS

미디어 파트너
PARTENAIRE MÉDIA

inartplatform
incheonartplatform
incheonartplatform

www.inartplatform.kr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AMBASSADE DE FRANCE EN RÉPUBLIQUE DE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INSTITUT FRANÇAIS
Novembre Numérique